18 · 19세기 교체기 왕실 한글편지의 국어학적 특징

-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흥은위가 한글편지를 대상으로 -

이 승 희* · 김 한 별**

1. 서론
2. 서지 사항
3. 표기・음운적 특징
4. 형태・통사적 특징
5. 특이한 어휘
6. 결론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수원화성박물관에 소장된 興恩尉 鄭在和(1754-1790) 가문의 한글편지 묶음을 대상으로 이 문헌에 반영된 18 · 19세기 교체기의 왕실 한글편지의 국어학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6월 26일, 흥은위 정재화의 8세손 정원찬 씨등 후손이 집안에 전해지던 유물 1,014점을 수원화성박물관에 기증하였다.[1] 흥은위 정재화는 思悼世子(1735-1762)와 惠慶宮洪氏(1735-1815)의 딸이자 正祖(1752-1800, 재위 1776-

*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연합뉴스〉 2019년 6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6167400061?input=1179m

1800)의 누이동생인 淸璿公主(1756-1802)의 남편으로, 1766년 2월 10일 가례를 올려 興恩副尉로 봉해졌고, 훗날 高宗 때에 흥은위로 추증된 인물이다. 기증된 유물 중에는 한글편지 94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편지는 흥은위와 청선공주의 아들 鄭漪(1781-1832)와 외할머니 혜경궁 홍씨가 주고받은 편지를 비롯하여 정조의 편지, 正祖妃 孝懿王后(1753-1821)의 편지 등으로 대부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에 쓰인, 당시의 왕실 및 사대부 집안의 언어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필자들은 이종덕, 전경목 교수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 한글편지 묶음(이하 '「흥은위가」' 혹은 '이 문헌')에 대한 판독, 주해, 현대어 번역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흥은위가」에 반영된 18·19세기 교체기의 국어학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문헌에서 관찰되는 국어학적 현상들은 한글편지, 그중에서도 '왕실 한글편지'라는[2] 문헌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서간문의 언어는 다른 문헌어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왕실 한글편지는 동시대의 민간(사대부가, 역관, 승려, 노비 등) 한글편지에 비해 보수적인 언어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흥은위가」의 언어를 고찰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회 방언(social dialect) 혹은 상황변이어(register)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견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흥은위가」를 18·19세기 교체기의 국어의 일면을 보여 주는 자료로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흥은위가」의 서지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고,[3] 연구 대상 자료의 범위를 한정한다. 제3-5장에서는 이 문헌의 국어학적 특징을 고찰하는데, 각 章별로 '표기·음운적 특징', '형태·통사적 특징',

2) 이종덕(2005:1)은 "왕이나 왕비, 대비, 공주 등 왕실에 속하는 인물이 쓴 언간"을 가리켜 '왕실 언간'이라고 지칭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황문환(2015:143)은 "궁중 인물이 발신자가 된 언간"에 대하여 '궁중 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일단 '언간'을 '한글편지'로 바꾸어 부르고, '궁중 언간'이라는 용어가 "언간의 작성과 유통 공간이 궁중으로 한정"된다는 문제를 지적한 이종덕(2005:1)의 견해에 따라 '궁중 한글편지' 대신 '왕실 한글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보다 상세한 서지적 정보는 조만간 수원화성박물관에서 발간하는 「흥은위가」 도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이한 어휘'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한다.

2. 서지 사항

『흥은위가』는 편지 번호로 계산하면 총 94점이 되나, 그중 941-995번은[4] 편지지 한 장에 정의의 편지 사연과 그에 대한 혜경궁의 답장 사연이 함께 적혀 있고, 정의의 부인 延安金氏(1778-?)가 혜경궁에게 쓴 1017번 편지도 혜경궁의 답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들은 각각 2편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흥은위가』의 수는 총 150편이 된다(그러나 정의와 혜경궁의 사연이 모두 적혀 있는 995번 편지는 대부분 손상되어 그 내용을 거의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상 이용 가능한 편지는 총 148편이다). 또한 편지와는 별도로 피봉 8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개 수신인의 관직명과 거주하는 곳의 지명이 적혀 있다. 다만 그중 1016번의 경우는 봉투 겉면에 짧은 사연이 적혀 있어서 한글편지와 함께 자료로 이용될 만하다.

총 150편의 편지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혜경궁이 쓴 편지로 모두 76편이다. 대부분 외손자인 정의에게 보낸 편지이나, 그중 2편은 정의의 아내 연안김씨에게, 1편은 정의와 그 누이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정의가 쓴 편지는 55편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며, 모두 외할머니 혜경궁에게 보낸 문안 편지이다.[5] 그 외에는 정의의 아내 연안김씨가 혜경궁에게 쓴 문안 편지와 남편에게 보낸 편지 총 2편, 청선공주의 언니인 淸衍公主(1754-1821)가 조카인 정의 및 조카며느리 연안김씨에게 보낸 편지 총 7편, 정조의 편지 1편, 정조비 효의왕후의 편지 1편, 金尙宮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쓴 편지 1편, 그리고 발신자

4) 편지의 일련번호는 수원화성박물관에서 부여한 '기증번호'를 그대로 따랐다. 단, 동일 편지지에 답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941-1', '941-2' 등과 같이 붙임표(-)와 숫자 '1, 2'를 붙여 둘을 구분해 두었다. 붙임표 뒤에 '2'가 붙은 것이 '1'에 대한 답신임을 뜻한다.

5) 발 · 수신자를 특정할 수 없는 1033번 편지는 지방 근무 중인 남편이 집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되는바, 정의가 아내 연안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 정의의 편지는 총 56편이 된다.

와 수신자를 알기 어려운 편지 7편이다.[6)]

「흥은위가」 중에는 날짜가 명시된 예가 있어도 연도가 명시된 경우는 드물어서 편지의 시기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편지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 등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대략적인 시기 추정이 가능한 예들도 있다. 날짜 확인이 가능한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편지는 1790년 1월 14일 정의의 열 살 생일에 혜경궁이 보낸 것(996번)이고, 가장 늦은 시기의 편지는 一進會 義兵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을ᄉᆞ 십월 념ᄉᆞ일(1905년 10월 24일)' 편지(1035번)이다. 이들은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무려 116년의 시간 차이를 보여준다. 다만 1035번 편지를 포함하여 발신자와 수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7편을 제외하면, 「흥은위가」의 대부분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생몰년도 및 편지 내용을 통해 추정할 때 대개 1790-1830년 사이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문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문안 편지가 대부분이다. 건강을 염려하거나 새해나 생일 등을 맞이하여 축하를 전하고, 喪事를 치르거나 제사를 앞둔 상황에서 참담한 심정과 위로를 전하는 편지, 지방 수령으로 부임함에 따른 걱정과 당부를 전하는 편지 등 사대부 집안의 일상을 담은 내용이 많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承候를 위해 궐에 출입하는 문제라든가, 혜경궁 친정 집안 후손의 입궐을 둘러싼 조정의 논란 등 왕실의 일원으로서 겪는 특수한 상황을 담은 편지들도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공적 영역의 이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참고할 만하다. 「흥은위가」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의 왕실 및 사대부 집안의 언어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혜경궁 홍씨의 편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그중에는 대필도 있으나 직접 쓴 것도 많아서 궁중 서체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50편의 편지 중 〈표 1〉의 4편을 제외한 146편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4편은 기본적으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 발신자와 수신자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편지라도 이들 간의 관계는 편지에 명시된 경우가 많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31번(이질→이모), 1035번(여동생→오빠), 1034번(질부→시아주머니), 1033번(추정: 남편→아내), 1020번(동생 정→"거거"(哥哥, 오빠)), 1032번(미상), 1019번(민집 또는 홍집→"아ᄋᆞ님").

발신 시기도 미상이거나 다른 편지들에 비해 한참 후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상이 많이 되어 연구 자료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994번 편지는 본고의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편지가 발 · 수신자가 명확하고, 그에 따라 발신 시기의 범위도 한정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표기와 음운 현상을 살펴보는 데에는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편지(4편)

기증번호	발신 시기	수수 관계	연구 대상 제외 사유
1031	미상	이질 → 이모	발신 시기 및 발신자 미상.
1035	1905년 10월 24일	여동생 → 오빠	시기적으로 후대. 발신자 미상.
1034	1885년 3월 17일	질부 → 시아주머니	시기적으로 후대. 발신자 미상.
1020	1814년 또는 1874년 1월 27일	동생 '뎡' → '거거'(오빠)	발신 시기 불명확. 발신자 미상.

3. 표기 · 음운적 특징

1) 표기적 특징

• 병서 표기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에 쓰인 병서자는 모두 합용병서뿐이다.[7] 합용병서는 종성과 초성에 쓰인 것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그중 종성에 쓰인 합용병서로는 '셟고[哀]〈1017-2〉, 셟ᄉᆞ와〈1017-1〉'와 '애둡다[慨]〈945-2〉' 등과 같이 용언의 활용형에서의 'ㅳ'만이 소수 발견된다.

7) 기증된 한글편지 자료 전체에서 각자병서가 쓰인 예는 단 1개에 불과한데, 그것은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20세기 초 편지에서 발견된다. 예 영감게 돈빅이ᄂᆞ 으더 ᄊᆞ올 샹덕을 〈1035, 1905년, 여동생→오빠〉.

초성에 쓰인 합용병서는 경음 표기이다. /ㅆ/은 'ㅺ'으로, 그 외 /ㅃ, ㄸ, ㄲ, ㅉ/은 'ㅹ, ㅉ, ㅆ, ㅉ'으로 각각 표기되는 것이 19세기의 일반적인 양상인데, 이 한글편지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다만, /ㅃ, ㅉ/의 예는 본고의 대상 자료에 출현하지 않아 그 표기를 확인할 수 없다.[8] 아래 (1)은 'ㅺ'의 예를, (2ㄱ, ㄴ)은 'ㅉ'과 'ㅆ'의 예를 각각 제시한 것이다.

(1) ᄇᆞ람 ᄲᅩ이디[風] 〈991-2〉 / 떡국이나 ᄌᆞ로 ᄲᅮ어[湯] 〈1018〉 / 글시 ᄲᅳ기가[書] 〈1006〉 / 요긴이 ᄲᅳ면[用] 〈958-2〉 / 말ᄡᅵ가[言] 〈955-2〉

(2) ㄱ. ᄯᅩ[又] 〈1008〉 / ᄯᅥ나오려[離] 〈944-1〉 / ᄯᅳᆺ을[志] 〈958-2〉 / 이ᄯᅢ[此時] 〈959-1〉 / 더ᄯᅢ[彼時] 〈977-2〉

ㄴ. ᄭᅮᆷ이나 ᄭᅮ고[夢] 〈1010〉 / ᄭᅳᆺ희[末] 〈970-2〉 / ᄭᅵ긋ᄒᆞ다[潔] 〈990-2〉 / 일ᄭᅵ오고[開] 〈976-2〉

• 연철 · 분철 · 중철 표기

곡용에서는 '월삭이(月朔)〈967-1〉, 쇼인은(小人)〈982-1〉, 오늘날을〈1026〉'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분철 표기가 고수되었다. 이는 이미 18세기에 확립된 전통이었다. 다만, 겹받침으로 끝나는 체언이나[(3ㄱ)], /ㅅ, ㅈ/ 등 당시 받침 표기로 허용되지 않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3ㄴ)], 용언의 명사형은[(3ㄷ)] 모두 연철 표기되었다.

(3) ㄱ. 갑술[價] 〈958-2〉 / 그 아히밧긔ᄂᆞᆫ[外] 〈952-2〉

ㄴ. 그ᄅᆞ시나[器] 〈1018〉 / ᄆᆞ어술[何] 〈966-1〉 / 공연ᄒᆞᆫ ᄌᆞ술[所行] 〈953-2〉 / 알 거시니[知] 〈966-2〉 // 나ᄌᆞᆫ[晝] 〈946-1〉

ㄷ. 기ᄃᆞ리미[待] 〈1003〉 / ᄇᆞ라오ᄆᆞᆫ[望] 〈969-1〉 / 슈손ᄒᆞ오시미나(瘦損) 〈961-1〉

활용형은 (4)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연철 표기가 주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5)처럼 /ㅂ, ㄱ, ㅁ/ 말음 용언은 분철되며, 연철된 것이 오히려 극소수의 예외가 된다. 예 ᄌᆞ근[小]〈1018〉, 나ᄆᆞᆫ 것[餘]〈1033〉.

8) 그중 'ㅹ'의 예는 이 글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1035번 편지에서 1회 출현한다. 예 어천ᄉᆞ 공무로 오ᄌᆞᆨ ᄲᅦᆺ치ᄋᆞᆸ시려 〈1035, 1905년, 여동생→오빠〉.

(4) ㄱ. 어더낼[得] 〈958-2〉 / 바다[受] 〈1004〉
ㄴ. 아라[知] 〈1006〉 / 머러시니[遠] 〈998〉
ㄷ. 우ᄉᆞ시고[笑] 〈958-2〉 / 이ᄉᆞ랴마ᄂᆞᆫ[在] 〈958-2〉
ㄹ. ᄌᆞᄌᆞ시면[頻] 〈1018〉 / ᄂᆞᄌᆞ니[晩] 〈1003〉
ㅁ. ᄀᆞᄐᆞ시면[如] 〈1018〉
ㅂ. 노흔[放] 〈949-2〉
ㅅ. 업ᄉᆞ며[無] 〈972-2〉
(5) ㄱ. 닙은[着] 〈976-2〉 / 잡아[執] 〈1019〉 / 좁아[狹] 〈977-2〉
ㄴ. 먹으며[食] 〈990-2〉 / 뎍으니[書] 〈1028〉
ㄷ. 남은[餘] 〈962-1〉 / 검엇더라[黑] 〈1002〉

사실 연철 표기된 위 (4) 중에서 (4ㄱ, 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ㅅ, ㅈ, ㅌ, ㅎ, ㄸ/ 등으로 끝나는 용언들로, 이들 자음(군)은 당시의 표기법으로는 종성에 쓰일 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을 안고 있는 존재들이었다.[9] 따라서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있는 여섯 자음(/ㅂ, ㄷ, ㄱ, ㅁ, ㄴ, ㄹ/)[10] 중에서 (5)처럼 무려 셋이나(/ㅂ, ㄱ, ㅁ/) 사실상 분철 표기만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활용에서도 분철 표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중철 표기는 곡용[(6ㄱ)]에서는 물론, 형태소나 단어 내부[(6ㄴ, ㄷ)]에서도 나타나는데, '목긔'와 '집 것ᄉᆞ로'를 제외하면 모두 /ㅊ/을 'ㅅㅊ'으로 적은 것들이다.

(6) ㄱ. 목긔[喉] 〈960-2〉 / 집 것ᄉᆞ로 〈958-2〉 / 몃치[幾] 〈976-1〉 / 소옴갓출['솜가죽을'] 〈958-2〉
ㄴ. 곳친[改] 〈1003〉, 곳쳐 〈945-2〉
ㄷ. 밧치ᄂᆞᆫ[貢] 〈1033〉 / 이만 긋치니[止] 〈1026〉 / 못 닛치여[忘] 〈1001〉

과도 분철된 어사도 발견된다. 부사 '임의[旣]〈984-1〉'와 명사 '금음날[晦]〈953-2〉' 등이 그 예로, 모두 후행 음절 초성의 /ㅁ/을 선행 음절 종성으로 올려 적은 것들이다.

9) 'ㅅ'의 경우 표기법상으로는 종성에 올 수 있었으나 그 음가는 [s]가 아니라 [t̚](/ㄷ/)였다.
10)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은 /ㅂ, ㄷ, ㄱ, ㅁ, ㄴ, ㅇ[ŋ], ㄹ/ 등 7개이나, 그중 /ㅇ/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섯 자음"이라고 말한 것이다.

• 종성 ‘ㅅ’과 ‘ㄷ’ 표기

이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앞에서 종성 /ㄷ/은 ‘뜻과[志]〈969-2〉, 엇고[得]〈1011〉, 밧고[受]〈996〉’ 등과 같이 ‘ㄷ’ 대신 ‘ㅅ’으로만 표기된다. 모음 조사나 어미 앞에서는 /ㄷ/ 말음 체언과 용언이 서로 달리 적혔다. 체언 어간말 /ㄷ/은 ‘좁은 곳의〈1003〉’와 같이 모음 앞에서도 ‘ㅅ’으로 적고 분철되었다. 반면에, 용언 어간말 /ㄷ/은 (4ㄱ)과 같이 ‘ㄷ’을 살리되 연철되었다. 18세기 후기부터는 /ㄷ/ 말음 용언과 어미의 결합형을 ‘어더, 바다’처럼 연철하지 않고 ‘엇어, 밧아’와 같이 ‘ㅅ’화(化)한 뒤에 분철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 한글편지에서는 그러한 표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 /ㄹㄹ/ 연쇄 표기

근대 국어 표기법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ㄹㄹ/ 연쇄를 ‘ㄹㄴ’으로 적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한글편지의 주요 발신자인 혜경궁은 (7)과 같이 ‘고유어’나 ‘한자어 어근에 고유어 접미사가 결합한 복합어’ 구성의 /ㄹㄹ/을 주로 ‘ㄹㄹ’로 표기한다. (7ㄱ)은 형태소 내부, (7ㄴ)은 파생 부사, (7ㄷ)은 곡용의 예이다. 다만, (7ㄱ′, ㄴ′)처럼 ‘ㄹㄴ’이나 ‘ㄴㄴ’으로 적은 예도 소수 발견된다.

(7) ㄱ. 달라[授] ᄒᆞ기 〈976-2〉 / 올라왓다가[登] 〈1004〉 / 볼라시니[登] 〈977-2〉 / 몰라[不知] 〈1003〉
ㄱ′. 블너[呼] 〈949-2〉
ㄴ. 날로[日] 심ᄒᆞ니 〈1012〉 / 실로(實) 〈1002〉
ㄴ′. 먼니[遠] 〈1005〉 / 먼니셔 〈1006〉
ㄷ. 므슴 일로[事] 〈1003〉

이에 반해 다른 발신자들은 아래 (8)과 같이 ‘ㄹㄴ’ 표기례를 많이 보인다. (8ㄱ, ㄴ)은 형태소 내부와 파생 부사의 예를 보인 것이다(‘ㄹㄹ’ 표기례는 생략한다). 혜경궁 못지않게 많은 편지를 남긴 정의는 ‘ㄹㄹ’과 ‘ㄹㄴ’ 표기를 서로 비슷한 비율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8ㄷ)과 같이 단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있는 /ㄹ#ㄹ/도 ‘ㄹㄴ’으로 표기하는 특징을 보인다.[11]

(8) ㄱ. 달나[異] 〈1018, 연안김씨〉 / 믈너[退] 〈943-1, 미상〉 / 올나올[登] 〈976-1, 정의〉 / 올녀보내라 〈1033, 미상〉 / 한가ᄒᆞ올넌가(閑暇) 〈987-1, 정의〉 / 엇더ᄒᆞ올넌디[何] 〈976-1, 정의〉
ㄴ. 실노(實) 〈1033, 미상〉 / 멀니[遠] 〈946-1, 정의〉
ㄷ. 못 밋출 니 업ᄉᆞ오니 ['못 미칠 것이 없사오니'] 〈976-1, 정의〉 / 못 밋ᄌᆞ올 니는 업술 듯ᄒᆞ와이다 ['못 미칠 리는 없을 듯합니다'] 〈976-1, 정의〉

한편, 한자어 내부의 /ㄹㄹ/ 연쇄는 '길녜(吉禮)〈958-2〉, 길녜의ᄂᆞ〈958-2〉'과 같이 혜경궁도 'ㄹㄴ' 표기를 사용한다. 요컨대 고유어를 구성 요소로 하는 단어의 /ㄹㄹ/ 연쇄에 대해서는 혜경궁의 표기법과('ㄹㄹ') 외손자 정의의 표기법이('ㄹㄹ~ㄹ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2) 음운적 특징

• /ㆍ/의 비음운화

/ㆍ/는 늦어도 18ㆍ19세기 교체기에는 완전히 비음운화(Dephonologisierung) 되었다. 그러나 이 한글편지에서는 표기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ㆍ'가 중세 국어와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상당히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질서에서 벗어난 예만 일부 제시하기로 한다.

(9) ㄱ. 단니〃[行] 〈988-2, 혜경궁〉 / 한ᄀᆞ지로[同] 〈944-2, 혜경궁〉 / 마ᄅᆞ이오신가[裁] 〈963-1, 정의〉
ㄱ′. ᄆᆞ디못ᄒᆞᆫ[不得已] 〈991-2, 혜경궁〉 / ᄀᆞᆫ 괴귀비ᄅᆞᆯ(各 怪鬼輩) 〈953-1, 정의〉 / ᄉᆞᆷ망의나(三望) 〈963-2, 혜경궁〉 / ᄒᆞ의ᄂᆞ(下意) 〈963-1, 정의〉 / ᄒᆞ딕(下直) 〈972-2, 혜경궁〉
ㄴ. 모긔가[蚊] 〈1004, 혜경궁〉
ㄴ′. 그ᄅᆞᆺ[器] 〈1018, 연안김씨〉 / 녀ᄅᆞᆷ이[夏] 〈1028, 청연공주〉 / 드ᄅᆞᆯ가[聞] 〈1006, 혜경궁〉 / 어ᄂᆞ덧 〈1026, 청연공주〉 / 우ᄉᆞ온[笑] 〈1002, 혜경궁〉 / 일ᄌᆞ이[早] 〈963-1, 정의〉
ㄴ″. 업ᄉᆞ니[無] 〈1006, 혜경궁〉 / ᄂᆞᄌᆞ니[晩] 〈1003, 혜경궁〉
ㄷ. 샹(上) 벌은 … 듕(中) 벌은 〈976-1, 정의〉
cf. 샹(上) 볼을 … 듕(中) 볼 〈976-2, 혜경궁〉

11) '밋출 니'의 '니'는 의존 명사 '이[者]'로 소급하는 단어인데, 선행 음절 종성에서 복사된 /ㄹ/이 'ㄴ'으로 표기된 것이다.

(9ㄱ, ㄱ′)은 어두 음절에서의 /·/의 변화가 반영된 예이다. 전자는 /·/가 'ㅏ'로, 후자는 /ㅏ/가 '·'로 표기되어 있다.[12] 비어두 음절에서는 /·/가 'ㅡ'로 된 예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9ㄴ)과 같이 '모긔'의 이중모음 /ㅢ/가 'ㅢ'로 실현된 예 정도가 발견될 뿐이다. 그 대신 중자음 아래에서 본래의 /ㅡ/가 '·'로 표기된 어사는 형태소 내부와[(9ㄴ′)] 경계를[(9ㄴ″)] 불문하고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이는 국어 표기·음운사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9ㄷ)은 옷을 세는 단위인 의존 명사 '불'이 정의의 편지에서 '벌'로 반사되어 있는 예로, '·〉ㅓ'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 단어가 혜경궁의 답신에서는 보수형인 '불'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祖孫 간의 세대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13]

• 하향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하향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여부를 말해 주는 적극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만ᄉᆡ(萬事+-이) 다 허ᄉᆞ니 〈981-2〉, 봄날 이러ᄒᆞ기 녜ᄉᆡ나(例事+-이나) 〈942-2〉, 대되(大都+-이) 흔만ᄒᆞ오샤 〈980-1〉' 등과 같이 개음절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주격 조사 '-이'나 계사가 결합하여 'V+i→Vy'의(V: 단모음, y: 경구개 활음) 공시적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다. 즉, '만ᄉᆡ, 녜ᄉᆡ, 대되' 등은 통시적으로 접미사 '-이'가 결합된 체언 어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파악한다면 이들은 말음절 모음의 음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 자료가 된다.

• 움라우트, 전설모음화

움라우트와 전설모음화(/ㅅ, ㅈ, ㅊ/ 뒤에서의 'ㅡ〉ㅣ')의 예도 이 한글편지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10ㄱ, ㄴ)은 형태소 내부와 경계(파생)에서의 非움라우트형을, (11ㄱ, ㄴ)은 형태소 내부와 경계(활용)에서의 非전설모음화형을 각각 제시한 것이다.

---

12) (9ㄱ)의 '한ᄀᆞ지로'는 제1음절에서는 /·/가 'ㅏ'로, 제2음절에서는 /ㅏ/가 '·'로 표기된 현상을 모두 보여 주는 예이다.

13) 1735년생인 혜경궁은 /·/를 다른 모음과 어느 정도 구별하였을 것이나, 1781년생인 정의는 그러한 구별을 거의 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 ㄱ. 어미[母] 〈961-2〉 / 잘삳겻다[美] 〈1006〉 / 드리고 잇는[帶] 〈966-2〉 / 느려가[降] 〈1007〉
ㄴ. 먹여[食] 〈1006〉 / 막히온[滯] 〈970-1〉 / 불피니[履] 〈961-2〉 / 죽기로[死] 〈1006〉 / 옴겨[遷] 〈1006〉

(11) ㄱ. 보디 슬ᄉᆞ오려니와[嫌] 〈963-1〉 / 공연ᄒᆞᆫ 즈술[所行] 〈953-2〉 / 졔향 츠옵고[祭] 〈969-1〉 / 어즈럽다[亂] 〈1014〉 / 거츤[荒] 공슈 음식으로 〈1018〉
ㄴ. ᄌᆞ즈시면[頻] 〈1018〉

둘 다 당시 중부 방언의 일상어(vernacular)에서는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모두 비규범적인 낙인형(stigmatized form)으로 인식됨에 따라 격식과 체면을 중시하는 왕실과 사대부 인물들의 서간문에서는 배격된 것이 아닐까 한다.

• ‘ㅗ〉ㅜ’

18세기 후기 중앙어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비어두 음절에서의 ‘ㅗ〉ㅜ’ 모음 상승은 이 한글편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12ㄱ)은 비어두 음절에서 /ㅗ/를 유지하고 있는 어휘 · 문법 형태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12) ㄱ. 밧고여[換]〈1024〉 / 당샹은 누고〃니[誰] 〈955-2〉 / 아조[殊] 〈960-1〉 / ᄒᆞ는고나[爲] 〈945-2〉
ㄴ. 갈고리ᄀᆞ디[鉤] 〈963-1, 정의〉, 갈구디는[鉤][14] 〈963-2, 혜경궁〉

(12ㄴ)의 ‘갈고리’와 ‘갈구디’는 정의와 혜경궁이 주고받은 동일한 963번 편지지에서 1회씩 출현한 단어이다. 두 단어는 형태와 의미면에서 서로 어원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각기 ‘ㅗ’형과 ‘ㅜ’형으로 쓰인 것이다. 그런데 ‘갈구디’의 직접적인 선대형은 문증되지 않으며, ‘갈고리’는 17세기 후기에 공존하고 있는 ‘갈구리(『老乞大諺解』 권下 62b)’와 ‘갈고리(『朴通事諺解』 권中 35a)’로 소급한다. 따라서 (12ㄴ)은 ‘ㅗ〉ㅜ’의 적극적인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14) ‘갈구디’의 현대 표준어형는 ‘갈고지’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의미는 ‘가장귀가 진 나무의 옹이와 우듬지를 잘라 버리고 만든 갈고랑이’이다.

이들의 어원적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둘 중 하나는 'ㅗ>ㅜ'의 개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비원순모음화

'보리[麥]>버리, 포대기[褓]>퍼대기, 몬져[先]>먼저' 따위의 비원순모음화는 현대 경기 지역어의 주요 음운론적 특징으로, 18세기 후엽부터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다(李秉根 1970:163). 그러나 「흥은위가」에서는 이 현상을 찾을 수 없다. 가령, 문헌상에서 발견되는 가장 보편적인 비원순모음화의 예인 부사 '먼저(<몬져)'는 이 한글편지에서 총 6회 출현하는데, 모두 舊形인 '몬져'로만 나타난다.

•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대체로 중세국어 시기의 질서를 잘 따르고 있는데, 그러한 양상은 'ㅂ' 불규칙 활용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13) ㄱ. 반가와 〈1003〉 / 애돌와 〈951-2〉 / 새로와[新] 〈1027〉 / 괴로와[苦] 〈1018〉
ㄴ. 그리워[慕] 〈1004〉 / 더워[暑] 〈964-2〉 / 어려워[難] 〈947-2〉

(13ㄱ, ㄴ)은 'ㅂ' 불규칙 용언 중 '아'계 어미와 '어'계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을 각각 제시한 자료이다. 현대 서울말에서는 어간말 모음이 고모음이면 '어'계 어미를 취하며(예 그리워, 쉬워서, 우:스워, 누워서), 비고모음이면 '아'계 어미를 취하되(예 매와서, 더와서, 고:마와요, 외로와서) '어'계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도 간혹 발견된다(예 아름다워서, 가려워(~가려와서), 괴로워서, 무서워서(~무서와서), 징그러워서)[유필재(2006:206-207)]. (13ㄴ)의 '더워, 어려워'는 어간말 모음이 비고모음임에도 '-어'와 결합한 것들로, 아직 중세국어식의 활용형을 유지하고 있는 예들이다.

그러나 /ㅐ, ㅚ/ 말음 어간의 활용형은 어미가 '어'형으로 일관된다. 예 내여[出]〈961-2〉, 보내엿다[送]〈966-2〉, 보태여도[裨]〈958-2〉, 디내여[經]〈983-1〉, 되엿ᄉ오며[化]〈960-1〉. 이는 '아'형과 '어'형 어미가 공존하면서 '아'형이 더 우세하였던 중세국어의 모음조화 양상과는 다른 것이다.

• 구개음화

구개음화 중에서는 'ㄷ' 구개음화와 그 과도교정의 예만 출현하며, 'ㅎ'과 'ㄱ' 구개음화형 및 이들의 과도교정형은 보이지 않는다. 'ㄷ' 구개음화는 대체로 억제되어 있는 가운데, 혜경궁에 비해 그 외손자인 정의가 개신형 표기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 티려[帳] 〈963-2, 혜경궁〉, 치오니 〈963-1, 정의〉 / 니뎡샹은(李定祥) 〈966-2, 혜경궁〉, 니졍샹은 〈966-1, 정의〉. 이는 음운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19세기 한글편지 자료에서 'ㄷ' 구개음화의 비실현형처럼 나타나는 예들은 실제 음성형이라기보다는 표기의 보수성으로 이해야 한다(김한별 2020b:224-236). 다만, 1735년생으로 高齡인 혜경궁은 그의 언어 습득기를 고려할 때 'ㄷ' 구개음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14ㄱ, ㄱ′)은 고유어의 개신형과 비개신형을, (14ㄴ, ㄴ′)은 한자어의 개신형과 비개신형을 각각 제시한 것이다. (15ㄱ, ㄴ)은 고유어와 한자어에서의 과도교정형이다.

(14) ㄱ. 죠흔[好] 〈946-1〉 / 지내오니[經] 〈946-1〉 / 곳치디[改] 〈985-1〉 / 빗두러지와[歪] 〈963-1〉
ㄱ′. 디나오시고[經] 〈971-1〉 / 뎍으니[書] 〈1026〉 / 엇디[何] 〈945-2〉 / 아니ᄒᆞ오신디[不] 〈1018〉 / 쓰디[用] 말고 〈958-2〉
ㄴ. 쟝이옵고(帳) 〈963-1〉 / 지톄ᄒᆞ면(遲滯) 〈945-2〉 / 퇴청ᄒᆞ기(退廳) 〈964-2〉
ㄴ′. 뎡의(鄭漪) 샹셔 〈941-1〉 / 궁텬텰디지통이(窮天徹地之痛) 〈1006〉 / ᄒᆞ딕(下直) 〈972-2〉
(15) ㄱ. 뎌린[痺] ᄃᆞ리ᄂᆞᆫ 〈947-2〉 / 그티니[止] 〈1028〉 / 언제ᄀᆞ디[何時] 〈945-2〉
ㄴ. 디통(至痛) 〈1024〉 / 듁(粥) 먹엇다 〈947-2〉 / 노텨ᄒᆞᆯ(露處) 〈977-2〉

'ㄷ' 구개음화의 개신율을 출현 빈도(token frequency)와 유형 빈도(type frequency)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집계된다.[15] 두 빈도 유형에서 공

15) '한자어'는 동일한 한자를 일부 구성 요소로 하더라도 전체 구성이 다르면 별개의 단어로 산정하였다(예 闕中, 囊中). 한편, '형태소 경계' 범주에서 전형적인 굴절의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곳쳐[改](〈고티-+-어)〈979-1〉'와 같은 예가 있기는 하나, '곳치디〈985-1〉, 곳치〈985-2〉' 등을 고려하여 '형태소 내부'의 예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형태

히 형태소 내부보다 형태소 경계에서의 개신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은, 비개신형이 표기의 보수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 준다.

〈표 2〉「흥은위가」의 'ㄷ' 구개음화 개신율

범주 / 빈도 유형	전체	형태소 내부			형태소 경계
		어휘 형태소		문법 형태소	
		고유어	한자어		
출현 빈도	73/1,060 (6.9%)	21/451 (4.6%)	46/317 (14.5%)	1/275 (0.4%)	5/17 (29.4%)
		67/768 (8.7%)			
유형 빈도	53/184 (28.8%)	9/23 (39.1%)	39/151 (25.8%)	1/5 (20.0%)	4/5 (80.0%)
		48/174 (27.6%)			

• 마찰음과 파찰음 뒤 /y/ 탈락

19세기 문헌에서는 마찰음 /ㅅ, ㅆ/과 파찰음 /ㅈ, ㅉ, ㅊ/ 뒤에서 yV 연쇄와 V가 혼기를 보이는 일이 급격히 늘어난다. 그러나 발신 시기가 18·19세기 교체기에 집중된 이 한글편지에서는 그러한 표기상의 혼란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 대상 자료에서 발견되는 예는 (16), (17)이 전부일 따름이다.[16]

(16) ㄱ.【ㅅyV→ㅅV】셔스의(書寫, 샤) 〈1028, 청연공주〉
ㄴ.【ㅅV→ㅅyV】슈요(愁擾, 수) 〈1030, 김 상궁〉 / 죵상(終喪, 상) 〈962-1, 정의〉

(17) ㄱ.【ㅈyV→ㅈV】장ᄌᆞ(障子, 쟝) 〈977-2, 혜경궁〉
ㄱ′.【ㄷyV→ㅈV】퇴청ᄒᆞ기(退廳, 텽) 〈964-2, 혜경궁〉
ㄴ.【ㅈV→ㅈyV】쟝판ᄒᆞ고(壯版, 장) 〈977-2, 혜경궁〉 / 챵통ᄒᆞᆫ(愴痛, 창) 〈1024, 청연공주?〉

소 경계'란, '갓치[如](〈ᄀᆞᆮ-+-이), 것치이오니(〈걷-[卷]+-히-), 밧치ᄂᆞᆫ[卷](〈받-+-히-)' 등과 같이 모두 단어 형성 과정에 개재하는 것에 한정된다. 만일 이들 어사가 모두 단일어화(lexicalization)하였다고 본다면, 이들은 '형태소 내부' 범주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16) 【】 안에 제시한 'ㅅ, ㅈ, ㄷ'은 각각 마찰음, 파찰음, 치조 파열음 계열을 대표한다.

(16ㄱ, ㄴ)은 /ㅅ/ 뒤에서 /y/가 탈락하고 첨가된 예를 각각 나타내는데, 혜경궁의 한글편지에서는 이들 혼기를 전혀 찾을 수 없다.[17] (17ㄱ, ㄴ)은 /ㅈ/ 뒤 /y/가 탈락 및 첨가를, (17ㄱ′)은 'ㄷ' 구개음화를 겪은 단어의 /y/ 탈락을 보인 것이다. (17)의 예는 (16)과는 정반대로 대부분(4개 중 3개) 혜경궁 한글편지에서 발견된다.[18] 두 표기 현상이 이처럼 상이한 것은 이들이 서로 다른 음운 현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17)이 파찰음의 재음운화(Rephonologisierung)로 인한 결과임은 현재 異論의 여지가 없다. 다만, (16)의 동인은 현재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실정이다.[19]

마찰음 · 파찰음 뒤 /y/ 탈락은 서사자의 세대와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이 한글편지와 함께 「義城金氏 鶴峯宗家 한글편지」와 「秋史 한글편지」·「秋史家 한글편지」에서[20] 'ㅅyV～ㅅV' 및 'ㅈyV～ㅈV' 혼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발신자들을 그들의 생년에 따라 배열해 놓은 것이다[생년은 10년 단위의 年代로 제시하였다]. 그중 짙은 명암으로 표시한 발신자는 이들 혼기를 매우 많이 보이는 인물임을 뜻한다.

---

17) 혜경궁의 한글편지 중 다음 문장에 쓰인 '소양증'이라는 단어는 ① '搔癢症(몸 안에 열이 많거나 피가 부족하여서 피부가 가려운 병증)', 혹은 ② '少陽症(몸이 오싹오싹 추운 증상과 열이 나는 증상이 엇바뀌며, 입안이 쓰고 목이 마르며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고 결리는 병)' 중 어느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이상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예 글시 보고 반기며 나는 미감과 소양증 일양이오 〈9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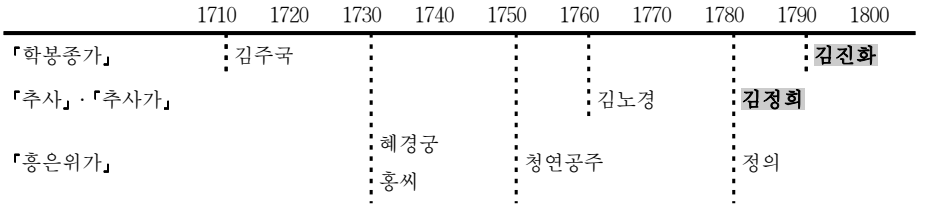
선행하는 '미감(微感)'이라는 단어를 고려할 때 '소양증'은 ②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혜경궁이 'ㅅyV'와 'ㅅV' 표기를 철저히 지킨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는다면 ①이 더 타당한 해석이 된다. '搔'와 '少' 자의 중세 한자음은 각각 '소', '쇼'이기 때문이다.

18) 혼기례로 볼 수도 있는 '어졔[昨日]〈1010, 혜경궁〉'와 '젹거든[小, 少]〈977-2, 혜경궁〉'은 (17)에서 제외하였다. 전자는 '어제'로도 판독할 가능성이 있으며, 후자는 판독 자체가 쉽지 않아 적극적인 자료로 삼기 어렵기 때문이다.

19) 김한별(2014:345-346)은 'ㅅyV～ㅅV' 혼기를 CGV 연쇄(C: 자음, G: 활음) 회피를 위하여 /ㅅ/ 뒤에서 /y/가 탈락한 결과로 해석함으로써, /ㅈ/의 재음운화에 따른 'ㅈyV～ㅈV'와 그 동인을 달리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김한별(2020a:287)에서는 그러한 결론을 유보하였다.

20) 「義城金氏 鶴峯宗家 한글편지」, 「秋史 한글편지」, 「秋史家 한글편지」는 이하에서 각각 '「학봉종가」', '「추사」', '「추사가」'로 약칭한다.

〈그림 1〉 19세기 전기 한글편지의 'ㅅyV~ㅅV' 및 'ㅈyV~ㅈV' 혼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발신자들과 그들의 생년



〈그림 1〉의 「학봉종가」와 「추사」·「추사가」를 통하여 우리는 1780·1790년대생의 한글편지에서 두 혼기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780년대생인 정의가 그러한 혼기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에 속한다. 이는 이 한글편지의 주요 음운론적 특징으로 꼽을 만한 것이다.

• 어두 /ㄴ/ 탈락, 유음화 및 유음의 비음화

어두 /ㄴ/ 탈락과 유음화는 흥은위가 사람들의 서간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어두 /ㄴ/ 탈락의 경우 '니ᄅᆞ러[至]〈971-2〉, 닐기[着]〈976-2〉, 녀름[夏]〈964-2〉, 닐신셩취의(立身成就)〈996〉, 뇨슈가(潦水)〈975-1〉' 등에서와 같이 구개적 환경에서의 어두 'ㄴ'이 어종과 관계없이 늘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음화는 다시 순행적인 것과 역행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각각 'ㄹㄴ'과 'ㄴㄹ'으로 적혀 있어 두 음운 현상의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전자의 예로는 '앓다[痛]'의 활용형인 '알ᄂᆞᆫ〈942-2〉, 알노라ᄂᆞᆫ〈1002〉'을, 후자의 예로는 '번로ᄒᆞ여(煩勞)〈964-2〉, 신로〃(神路)〈963-1〉, 그러ᄒᆞᆫ 량이면〈1006〉'을 들 수 있다. 다만, 순행적 유음화는 앞서 (8)에서 제시한 자료와 같이 /ㄹㄹ/ 연쇄를 'ㄹㄴ'으로 표기하는 현상을 통해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젼녜가(前例)〈972-2〉, 텬니(天理)〈954-1〉' 등과 같이 /ㄴㄹ/이 [ㄴㄴ]으로 실현된 소수의 단어를 통해, 역행적 유음화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변화인 유음의 비음화가 당시 실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형태 · 통사적 특징

1) 형태적 특징

• 체언의 특징

「흥은위가」는 19세기 전반 자료이므로 후기 중세국어에 나타났던 체언의 특징, 예를 들어 비자동적 교체와 같은 양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후기 근대국어의 다른 자료에서도 그러하듯, /ㅎ/ 말음 체언의 경우는 몇몇 예가 여전히 남아 있다.

(18) ㄱ. 아래로ᄂᆞᆫ 쥰슌ᄒᆞ오며 우흐로ᄂᆞᆫ[上] 돈면ᄒᆞ오샤 〈976-1〉, 더간은 우히 원찬ᄒᆞ고져 ᄒᆞ시랴마ᄂᆞᆫ〈960-2〉
ㄴ. 올흔[今年] 모긔가 불셔브터 잇더니 〈1004〉
ㄷ. 집안 ᄉᆞ무ᄅᆞᆯ 쥬관ᄒᆞᄋᆞᆸᄂᆞᆫ 터히[基] 〈946-1〉
ㄹ. 길히[路] 어즈럽다 ᄒᆞ니 답〃 념녀로다 〈1014〉
ㅁ. 나라흔[國] 모ᄅᆞᄋᆞᆸ실 거시니 별문안단ᄌᆞᄅᆞᆯ ᄒᆞ여야 올흘 ᄃᆞᆺᄒᆞ고나 〈1005〉
ㅂ. 뎡희ᄂᆞᆫ 제 족하 ᄒᆞ나히[一] 잇ᄉᆞ오ᄃᆡ 〈986-1〉
ㅅ. 저히 둘히[二] 보술피게 ᄒᆞ왓다 ᄒᆞ오니 〈966-1〉

• 용언의 특징

①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형용사가 어떠한 형태적 변화 없이 동사로도 쓰이는 사례가 빈번하였는데,[21] 근대국어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은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22] 그러나 근대국어에서 문헌상으로는 형용사의 명령형이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이들이 종종 사용되

21) 대표적인 예로, 『龍飛御天歌』 제2장의 '곶 됴코 여름 하ᄂᆞ니'에서 '하-'에 동사와 결합하는 선어말어미 '-ᄂᆞ-'가 결합한 것에서 이것이 "많다"란 의미의 형용사가 아니라 "많아지다"란 의미의 동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22) 다만 현대국어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해라' 등과 같이 몇몇 형용사의 명령형이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스승의날 노래'에 등장하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와 같은 노랫말에도 형용사의 명령형이 등장한다. 이를 '오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특정한 의미를 지닌 형용사의 경우는 명령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었을 가능성이 있다. 「흥은위가」에도 비록 예가 하나뿐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형용사의 명령형이 쓰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 필묵 간지 가니 가지록 글 잘ᄒᆞ고 대그ᄅᆞ시 담아 주니 대ᄂᆞᆫ 군ᄌᆞ의 고졀로 비기니 <u>놉고 구더라</u> 〈996〉

혜경궁이 외손자 정의의 생일에 선물을 보내면서 대그릇에 선물을 담아 주는 것은 대나무처럼 '높고 굳'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고 설명하는 구절로 '놉고 굳-'이란 형용사 구에 명령형 종결어미 '-어라'가 결합하였음을 볼 수 있다.[23]

- 어미의 특징

① 아주낮춤 등급의 의문형 종결어미

「흥은위가」 중 아주낮춤 등급의 'ᄒᆞ여라'체가 쓰인 경우 의문형 종결어미는 근대국어 시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냐, -랴'와 '-니, -리'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24] 아래는 모두 혜경궁이 외손자 정의에게 보낸 편지의 사례들인데, 선어말어미 '-ᄂᆞ-, -엇ᄂᆞ-, -더-'와 의문형 종결어미 '-냐', '-니'가 결합한 경우가 공존하고, 의문형 종결어미 '-랴'와 '-리'가 공존함을 볼 수 있다. 예 (20ㄱ′)처럼 바로 앞뒤의 문장에서 의문형 종결어미 '-니'와 '-냐'가 각각 쓰인 사례도 보인다.

(20) ㄱ. ᄒᆞᄅᆞ ᄉᆞ이 됴히 디내ᄂᆞ<u>냐</u> 〈996〉
ㄱ′. 상힝은 어ᄂᆞ날 써나ᄂᆞ<u>니</u> (중략) 머믈 집이 잇다 ᄒᆞᄂᆞ<u>냐</u> 〈945-2〉
ㄴ. 너ᄂᆞᆫ 그 집 쥬인 놈들 비러 드렷던 갑술 무어술 주엇ᄂᆞ<u>냐</u> 〈945-2〉
ㄴ′. 번역은 엇디 되엿ᄂᆞ<u>니</u> 〈984-2〉

---

23) '굳다'는 동사와 형용사 둘 다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높다'와 함께 쓰이고 있는데다가 의미도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에 가까운바 형용사로 파악된다.

24) 15세기에 등장하는 의문형 종결어미 '-니, -리'는 사용 양상을 볼 때 대체로 2인칭 주어 '그듸'와 일치하고 'ᄒᆞ야써'체 같은 중간 등급의 상대 높임법에 속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말 이래로 한글편지 등 상대적으로 구어에 가까운 자료에 주로 등장한 의문형 종결어미 '-니, -리'는 주어의 제약도 사라지고 'ᄒᆞ라〉ᄒᆞ여라'체 정도의 상대 높임법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이승희 2007:112-114).

ㄷ. 네가 응당 원동 지금 아니 간 듯ᄒᆞ고나 갓더냐 〈968-2〉
ㄷ′. 돈이 갓던가 시브니 언마나 갓더니 〈958-2〉
ㄹ. 너도 어제 날 싱각 즉히 ᄒᆞ여시랴 〈983-2〉
ㄹ′. 네 어미 내여보내던 모양이 눈의 볼피니 영결이런 줄 엇디 싱각ᄒᆞ여시리 〈961-2〉

그런데 'ᄒᆞ여라'체가 사용된 『흥은위가』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혜경궁의 편지에서는 후기 중세국어의 특징적인 의문형 종결어미 '-ㄴ다' 역시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1ㄱ)은 후기 중세국어식의 의문형 종결어미 '-ㄴ다'가 쓰인 예이며, (21ㄴ)은 같은 편지 안에서 의문형 종결어미 '-ㄴ다'와 '-니'가 함께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1) ㄱ. 너ᄂᆞᆫ 엇디 디내ᄂᆞᆫ다 〈952-2〉, 도임은 어ᄂᆞ 날이나 ᄒᆞ려ᄂᆞᆫ다 〈948-2〉, 더위 엇디 디내엿ᄂᆞᆫ다 〈983-2〉, 엇디ᄒᆞ려 ᄒᆞᄂᆞᆫ 싱각인다 〈1003〉
ㄴ. 더위 극ᄒᆞ니 엇디 드러왓ᄂᆞᆫ다 알고져 ᄒᆞᆫ다 ᄂᆡ일 드러올가 쉬여 훗날 드러올가 엇디ᄒᆞᄂᆞ니 〈1005〉

앞서 보았듯이 아주낮춤 등급의 의문형 종결어미로 '-니'와 '-냐'가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9세기에는 거의 사라진, 2인칭 주어와 일치하는 아주낮춤 등급의 의문형 종결어미 '-ㄴ다'가 함께 쓰인 것은 궁중 언어의 보수성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25]

25) 후기 중세국어에서 2인칭 주어와 일치하는 'ᄒᆞ라'체의 의문형 종결어미 '-ㄴ다, -ㄹ다' 중 '-ㄴ다'는 19세기까지도 간혹 나타나는 데 비해 '-ㄹ다'는 『흥은위가』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겠구나" 정도로 해석되는, '-리로다'의 축약형인 '-ㄹ다'의 예는 찾아볼 수 있다.
예 ㄱ. 너모 호졋ᄒᆞ니 누고 근실ᄒᆞᆫ 거술 어더 가게 ᄒᆞ면 홀다 〈1004〉
ㄴ. ᄉᆞ월 졀 든 후 이안을 ᄒᆞ면 됴흘다 〈1002〉
ㄷ. 탈이나 업술가 브리이디 못홀다 〈1007〉
다만 '-리로다'의 축약형 '-ㄹ다'의 존재 때문에 의문형 종결어미 '-ㄹ다'가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더위 극ᄒᆞ니 엇디 드러왓ᄂᆞᆫ다 알고져 ᄒᆞᆫ다 〈1005〉'와 같은 예에서 보이듯 '-ᄂᆞ다'에서 변화한 '-ㄴ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형 종결어미 '-ㄴ다'는 함께 쓰였기 때문이다.

② “추측, 의도” 표시의 ‘-게 ᄒᆞ엿-’

추측과 의도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겟-’은 후기 근대국어 시기에 사동의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게 ᄒᆞ엿-’으로부터 ‘-게 ᄒᆞ엿-〉-게엿-〉-겟-’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나진석 1971:301-304, 이기갑 1987). 특히 1775-1794년에 쓰인 「추사가」에는 이미 ‘-겟-’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26] 그런데 「흥은위가」의 경우는 19세기 초 자료에도 ‘-겟-’ 형태가 전혀 보이지 않고 ‘-게 ᄒᆞ엿-’ 형태만 나타나고 있어서 다소 보수적인 양상을 보여준다.[27]

(22) ㄱ. 오ᄂᆞᆯ 입셩ᄒᆞᄂᆞᆫ 날 마ᄎᆞᆷ 누의 싱일이니 든〃이 <u>디내게 ᄒᆞ엿다</u> 〈1000〉
ㄴ. 홍ᄋᆞᄂᆞᆫ 대역이 아닌가 보다 잘 ᄒᆞ고 나면 <u>깃브게 ᄒᆞ엿다</u> 〈960-2〉
ㄷ. 세 ᄯᅦ로 거드면 졍ᄒᆞ야 <u>됴케 ᄒᆞ여시니</u> 그ᄂᆞᆫ 너 ᄒᆞ고 시븐 ᄃᆡ로 ᄒᆞ여라 〈963-2〉
ㄹ. ᄂᆡ일은 너ᄅᆞᆯ 블러 보고 보내실디 <u>모ᄅᆞ게 ᄒᆞ여시며</u> 안ᄒᆡ ᄃᆞᆫ녀가고 ᄒᆞ면 날이 <u>늣게 ᄒᆞ엿다</u> 〈972-2〉

③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형 어미 ‘-기’

근대국어 시기에 명사형 어미 ‘-기’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여기에 부사격조사 ‘-로’나 ‘-에’가 결합한 ‘-기로’, ‘-기에’가 연결어미 ‘-아/어, -니, -ㄹ씨’처럼 “원인, 이유”를 표시하는 새로운 용법도 등장하게 되었다.[28] 더 나아가 부사격

---

26) 다음은 이병기(2013)에서 제시한 ‘-겟-/게시-’의 예 중에서 18세기 말의 사례만 가져온 것이다.

예 ㄱ. 내가 실셩치 아닌 젼 자ᄂᆡ게 밍낭ᄒᆞᆫ 말을 ᄌᆞ식ᄃᆞ려 <u>ᄒᆞ엿겟나</u> 〈02, 1775년, 해평윤씨(숙모)→김노직(媤甥姪)〉
ㄴ. 내 쇼싱ᄌᆞ로 인ᄒᆞ여 이런 무안ᄒᆞᆫ 일 볼 줄 꿈이나 <u>ᄭᅮ엇겟나</u> 〈03, 1775년, 해평윤씨(숙모)→김노직(媤甥姪)〉
ㄷ. 모시 겹바디도 더워 못 <u>닙게시니</u> 〈14, 1794년, 해평윤씨(시어머니)→기계유씨(며느리)〉
ㄹ. 념녀가 무궁ᄒᆞ니 답〃 심신을 졍치 <u>못ᄒᆞ겟다</u> 〈16, 1794년 1월 이전, 한산이씨(어머니)→호순 부 내외(딸과 사위)〉

27) 혜경궁의 한글편지에 ‘-게 ᄒᆞ엿-’만이 등장하고 있는 데 비해 혜경궁의 또 다른 저술인 『한중록』 계열의 이본들에는 ‘-게 ᄒᆞ엿-’과 ‘-겟-’이 공존하는데, 이들 자료는 혜경궁의 저술을 후대에 다시 필사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28)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므로, -(으)매’가 기원적으로는 명사형 어미 ‘-

조사가 생략된 '-기'만으로도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사례가 18세기 한글편지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29] 「흥은위가」에도 그러한 예가 많이 출현하고 있다.[30]

(23) ㄱ. 쇼인은 오늘 문안ᄒᆞ올ᄃᆡ 마춤 본증 담현의 뎨증을 겸ᄒᆞ와 밤이 디나오ᄃᆡ 낫디 못ᄒᆞ옵기 믈너 잇ᄉᆞ와 하회 경〃ᄒᆞ옵고 〈943-1〉
ㄴ. 어제 숨길다 드렷기 먹엇다 〈979-2〉
ㄷ. 이 구실 ᄯᅱ옵고ᄂᆞᆫ ᄯᅩ ᄒᆞ올 터 못 되옵기 박브득이 ᄌᆞ퇴ᄒᆞ올 의ᄉᆞ를 내왓다 ᄒᆞ오나 〈986-1〉
ㄹ. 어제 티졔문은 밧ᄌᆞ와 즉시 번역ᄃᆡ 못ᄒᆞ왓습기 오늘 식젼 못 알외옵고 〈978-1〉
ㅁ. 이 우ᄉᆞ온 것 벽샤ᄒᆞ다 ᄒᆞ기 보내니 노인의 일을 웃고 낭듕의 너흘가 ᄒᆞᆫ다 〈1002〉

④ 부정문의 보조적 연결어미 '-든'

「흥은위가」에서는 '못' 부정문과 '아니' 부정문에서 보조적 연결어미 '-든'이 쓰인 예가 여럿 보인다.

옴/움〉-ㅁ/음'에 부사격 조사 '-(으)로', '-에/애'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기로', '-기에'가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사례는, 간본의 경우 대개 18세기에 등장하고 있다.

예 ㄱ. 셩회 천박ᄒᆞ기로 인ᄒᆞ야 능히 셕년의 효를 다치 못ᄒᆞ니 〈御製自省篇諺解 내:5a〉
ㄱ′. 어려실 제브터 길러내ᄃᆞ시 ᄒᆞ엿습기로 제 발비ᄒᆞᆯ 때의 신이 가 보왓ᄉᆞ오니 〈闡義昭鑑諺解 4:58a〉
ㄴ. 바람도 죠히 부럳기예 일정 ᄇᆡ가 올 거시니 遠見의 올나 보옵소 〈改修捷解新語 1:12a〉
ㄴ′. 풍식이 아름답지 아니ᄒᆞ기에 비위를 뎡ᄒᆞ기 어렵다 〈明義錄諺解 2:21a〉

29) 『언간의 연구』(김일근 1986)에 수록된 한글편지 중 18세기 전반(각각 영조 초기와 영조 2년으로 추정) 자료에 '-기'가 "원인, 이유"를 나타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 ㄱ. 돈〃이 싸 보내지 아니기 ᄇᆞ람을 쏘여 그리 쓰다니 〈언간의 연구 152〉
ㄴ. 죵들 다 주ᄃᆡ 후진은 목시 아니오기 향덕이 아직 아니 왓기 몬져 주고 〈언간의 연구 179〉

30) 「흥은위가」에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기에/기예'의 예는 등장하지 않고, '-기로'의 예만 한 번 등장한다. 예 유길원 졔관 가기로 오늘 지슉ᄒᆞ고 ᄂᆡ일 슈향ᄒᆞ야 간다 ᄒᆞ니 〈1014〉

(24) ㄱ. 쳠극ᄒᆞᅀᆞᆸ든 아니ᄒᆞ와 디내오며 〈991-1〉
ㄴ. 나ᄂᆞᆫ 감긔 긴ᄒᆞ든 아니나 후문도 알프고 셩히 못 디내니 괴로오며 〈945-2〉
ㄷ. 가도든 아니시고 최촉 무수히 ᄒᆞ야 드려와 겨시니 〈1006〉
ㄹ. 제 우럿줍든 못ᄒᆞ오나 가죽이 문안 아ᄋᆞᆸᄂᆞᆫ 일 츅슈〃ᄒᆞ와 〈979-1〉
ㅁ. 됴셕 찬션 잘ᄒᆞ든 못ᄒᆞᅀᆞᆸᄂᆞᆫ가 시브오니 … 잘 디내시든 못ᄒᆞ시다가 〈1018〉

후기 중세국어 시기부터 부정문의 보조적 연결어미로는 대개 '-디〉-지'가 쓰였고 간혹 '-ᄃᆞᆯ〉-들'이 쓰였는데, 보조적 연결어미 '-든'의 예는 17세기 문헌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31] 다만 보조적 연결어미 '-든'은 18세기 말까지도 문헌에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았으며, 현대국어에서는 중부(충청)·서남·동남·제주 방언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 뿐 그 이북 지역에서는 아예 사라져 버렸고(이기갑 2003:538-539), 그 결과 표준어형으로도 채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기의 자료이자 서울의 왕실 및 사대부 가문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흥은위가』에서 부정문의 보조적 연결어미 '-든'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32]

2) 통사적 특징

• 높임법

① 상대 높임법

『흥은위가』에 사용된 상대 높임법으로는 아주높임 등급의 'ᄒᆞ쇼셔'체와 중간 등급인 'ᄒᆞ소'체, 낮춤 등급의 'ᄒᆞ여라'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글편지에만

31) 17세기 문헌에서 부정문에 보조적 연결어미 '-든'이 쓰인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그리 크게 술지게 붓든 아니호ᄃᆡ 〈痘瘡經驗方 37b〉, 몸이 ᄀᆞᆺ장 덥든 아니호ᄃᆡ 〈諺解痘瘡集要 下:25b〉, ᄯᅩ 可히 統屬ᄒᆞᆯ ᄃᆡ로 업든 몯ᄒᆞᆯ 거시니 〈家禮諺解 1:15a〉

32) 물론 『흥은위가』의 부정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 보조적 연결어미는 '-디'이나, '-든'의 예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한편 이 문헌에서 보조적 연결어미 '-ᄃᆞᆯ〉-들'의 예는 단 한 번 등장한다.
예 다만 네 쇼식 몰라 잘 디내ᄂᆞᆫ 줄을 알며도 ᄆᆞᅀᆞᆷ이 동〃ᄒᆞ여 닛치이들 아니ᄒᆞ니 이 ᄯᅩᄒᆞᆫ 노감 소친가 보다 〈1003〉

등장하는 특별한 종결어미 '-ᄋᆞᆸ'의 예도 간혹 등장한다.

아주높임의 'ᄒᆞ쇼셔'체는, 외손자인 정의와 그의 아내 연안김씨가 외할머니/외시조모인 혜경궁에게 쓴 편지[(25ㄱ, ㄴ)], '상궁'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왕실 인척인 정의의 부인에게 쓴 편지에 사용되었다[(25ㄷ)]. 이처럼 친족 관계나 신분, 지위에 있어서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ᄒᆞ쇼셔'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25ㄹ, ㄹ′)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보낸 편지에도 서로를 대등하게 높여 대우하여 'ᄒᆞ쇼셔'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3]

(25) 'ᄒᆞ쇼셔'체의 예

ㄱ. 텬은을 황감ᄒᆞ와 <u>ᄒᆞᆸᄂᆞ이다</u> 〈941-1, 외손자(정의)→외할머니(혜경궁)〉

ㄴ. 알외올 말ᄉᆞᆷ 하감ᄒᆞ오심 황공ᄒᆞ와 이만 <u>알외ᄋᆞᆸᄂᆞ이다</u> 〈1017-1, 외손부(연안김씨)→외시조모(혜경궁)〉

ㄷ. 일시라도 뵈ᄋᆞᆸᄉᆞ올 일 든〃ᄒᆞ와 <u>ᄒᆞᆸᄂᆞ이다</u> 〈1030, 추정: 상궁→왕실 인척(연안김씨)〉

ㄹ. 썩국이나 ᄌᆞ로 ᄲᅮ어 잡ᄉᆞᆸ긔 흰썩 <u>가ᄋᆞᆸᄂᆞ이다</u> 〈1018, 아내(연안김씨)→남편(정의)〉

ㄹ′. 금번은 아히 답장 못 ᄒᆞ오니 <u>니ᄅᆞᆸ쇼셔</u> 이만 <u>긋치ᄋᆞᆸᄂᆞ이다</u> 〈1033, 추정: 남편→아내〉

이 문헌에 쓰인 'ᄒᆞ쇼셔'체에는 예외 없이 선어말어미 '-ᄉᆞᆸ-'이 결합하였는데, 이때의 '-ᄉᆞᆸ-'은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을 표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청자에 대한 대우를 한층 높이는 기능을 한다.[34] 17세기 이후로, 특히 한글편지의 경우는 'ᄒᆞ쇼셔'체에 '-ᄉᆞᆸ-'이 결합한 형태가 일반화되면서 '-ᄉᆞᆸ-' 이하의 어미가

33) 이처럼 사대부가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아주높임의 'ᄒᆞ쇼셔'체를 사용한 사례는 「추사가」의 김정희 부부 편지와, 「학봉종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4) 현대국어의 '하십시오'체는 바로 여기에서 기원한다. 이 때문에 근대국어 시기의 아주높임 등급을 'ᄒᆞ쇼셔'체가 아니라 'ᄒᆞᆸ쇼셔'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또는 'ᄒᆞᆸ쇼셔'체를 'ᄒᆞ쇼셔'체보다 한층 높은 상대 높임법 등급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한글편지와 달리 간본의 경우에는 19세기까지도 여전히 'ᄒᆞᆸ쇼셔'와 'ᄒᆞ쇼셔'가 공존하고 있고 이들 간의 등급 차이를 나누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ᄒᆞ쇼셔'체에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의 '-ᄉᆞᆸ-'이 결합하는 현상을 수의적인 것으로 보고, 아주높임 등급도 'ᄒᆞ쇼셔'체 하나만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이승희(2007:147-150, 156) 참조.

생략된 한글편지 특유의 ‘ᄒᆞᆸ’ 종결형태도 등장하였다. 이 문헌에도 드물게 ‘ᄒᆞᆸ’ 종결형태가 나타난다.[35]

(26) ‘ᄒᆞᆸ’의 예
ㄱ. 쟈근 듁상ᄌᆞ 보내오십 (중략) 흰떡 갑ᄂᆞ이다 〈1018, 아내(연안김씨)→남편(정의)〉
ㄴ. 말ᄉᆞᆷ 남ᄉᆞ오되 이만 긋칩 〈1019, 누나 또는 시누이→남동생 또는 올케〉

(26ㄱ)은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전반적으로 ‘ᄒᆞ쇼셔’체가 사용되면서 ‘ᄒᆞᆸ’ 형태는 예문처럼 한 번 등장하였다. (26ㄴ)은 수신자가 ‘아ᄋᆞ님’으로 지칭되고 있어서 발신자가 누나이거나 시누이로 추정되는 편지인데 시종일관 ‘ᄒᆞᆸ’ 형태가 사용되었다. 근대국어 시기의 사대부가 한글편지에서 ‘ᄒᆞᆸ’ 종결형태는 대개 부부 간의 편지에서 ‘ᄒᆞ쇼셔’체와 함께 쓰이는 경향이 보이는데, 『흥은위가』의 경우는 부부 간의 편지가 드문 까닭에 ‘ᄒᆞᆸ’ 종결형태의 예도 드물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헌에서 상대 높임법의 중간 등급인 ‘ᄒᆞ소’체가 사용된 경우는 다음의 예뿐이다.

(27) ‘ᄒᆞ소’체의 예
ㄱ. 일열의 내〃 평안ᄒᆞ기 밋니 〈1028, 시이모(청연공주)→생질부(연안김씨)〉
ㄴ. 년ᄒᆞ야 평안ᄒᆞ기 밋니 〈1022, 외숙모(효의왕후)→시생질(정의) 또는 시생질부(연안김씨)〉

친족 관계에서 상위자가 분명한 시이모(청연공주)가 조카며느리에게 낮춤의 ‘ᄒᆞ여라’체 대신 중간 등급인 ‘ᄒᆞ소’체를 사용한 것은 아래 (28ㄷ)에서 청연공주가 조카인 정의에게 ‘ᄒᆞ여라’체를 사용한 것과 비교된다. 또한 (27ㄴ)에서도 친족 관계로나 지위로나 상위자인 외숙모 正祖妃 효의왕후가 시조카 또는 시조카

35) ‘ᄒᆞᆸ’ 종결형태의 상대 높임법 등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ᄒᆞ쇼셔’체와 동일한, 다만 한글편지 특유의 생략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독특한 종결 형태로 보는 견해(이승희 2007:157-159), ‘ᄒᆞ쇼셔’체에서 생략된 것으로서 그보다 다소 낮은 등급으로 보는 견해(황문환 2010) 등이 있다.

며느리에게 ‘ᄒᆞ여라’체가 아닌 ‘ᄒᆞ소’체를 사용한 점 역시 외삼촌인 正祖가 조카딸 ‘민집’에게 쓴 한글편지에서 ‘됴히 잇ᄂᆞ냐 집은 공연이 ᄯᅩ 올모니 웃는다 셰찬 보낸다 〈언간의 연구 199〉’와 같이 ‘ᄒᆞ여라’체를 사용한 것과 비교된다. 이와 같은 상대 높임법 사용은, 혈연에 의한 친족 관계보다 혼인에 의한 인척 관계에서 상위자가 하위자를 좀 더 높여 대우하는 경향 때문인데 조선시대 한글편지에서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다.[36]

「흥은위가」에서 낮춤의 ‘ᄒᆞ여라’체는, 다음 (28)의 예와 같이, 혈연으로 인한 친족 관계에서 확고히 상위자인 인물, 즉 외할머니/외시조모, 이모, 오빠가 각각 아랫사람인 외손자/외손부, 조카, 누이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용되었다.

(28) ‘ᄒᆞ여라’체의 예
ㄱ. 보완 디 오래니 섭〃ᄒᆞ다 〈941-2, 외할머니(혜경궁)→외손자(정의)〉
ㄴ. 나ᄂᆞᆫ 날포 알코 디내여시며 지금 낫디 못ᄒᆞ다 〈1017-2, 외시조모(혜경궁)→외손부(연안김씨)〉
ㄷ. ᄉᆞ연 남으되 병고의 계유 잠 덕으며 안부나 알고져 ᄒᆞ다 〈1025, 이모(청연공주)→조카(정의)〉
ㄹ. 안부 알고져 잠 덕ᄂᆞᆫ다 〈1021, 오빠(정조)→누이동생(청선공주)〉

한편, 매우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이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인용구문에서 ‘ᄒᆞ오’체, ‘ᄒᆡ’체가 쓰인 경우를 볼 수 있다.

(29) ㄱ. 네 어미가 ‘슈식 칠보 ᄒᆞ야 므엇 ᄒᆞ오리잇가 드려다가 ᄡᅳ오’ ᄒᆞ디 〈958-2〉
ㄴ. 겨실 제 이리ᄒᆞᄂᆞᆫ ᄉᆞ연을 드ᄅᆞ시고 우ᄉᆞ시고 ‘아모거시나 사 ᄡᅳ디’ ᄒᆞ시더니 〈958-2〉

이 편지는 혜경궁이 외손자 정의에게 쓴 것으로 예문 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딸 청선공주(정의의 어머니) 및 정조와의 생전 대화를 재구한 것이다. (29

36) 이 밖에도 혼인에 의한 인척 관계에서 同性보다는 異性일 때 상위자가 하위자에 대해 상대 높임법을 한층 높이는 경향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ᄒᆞ여라’체를 사용하나 시아버지는 ‘ᄒᆞ여라’체를 사용하기도, ‘ᄒᆞ소’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친족 간의 한글편지에 사용된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는 이승희(2005b) 참조.

ㄱ)에서는 청선공주가 자신이 지닌 '수식 칠보'를 왕실 가례 때 가져다 쓰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ᄒᆞ쇼셔'체와 함께 'ᄡᅳ오'라는 'ᄒᆞ오'체를 사용하였다. (29ㄴ)에서는 정조가 이러한 사연을 듣고 웃으며 혼잣말처럼 "아무것이나 사 쓰지"라고 반말, 즉 'ᄒᆡ'체를 사용하였다. 혜경궁의 저술인『한중록』계열의 이본들에도 대화 장면에서 'ᄒᆞ오'체와 'ᄒᆡ'체가 종종 등장하는데, 비록 법도가 엄격한 왕실이라도 가족 간의 일상 대화에서는 이처럼 상하 관계가 덜 엄격한 'ᄒᆞ오'체나 'ᄒᆡ'체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한다.[37]

② 주체 또는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의 '-ᄉᆞᆸ-'

15세기에 객체에 대한 주체의 겸양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던 선어말어미 '-ᄉᆞᆸ-'은 17세기 이후 근대국어 시기에는 주로 (주체 또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겸양을 표시하는 것으로 기능이 변화하였다.[38] 물론 'ᄋᆞᆫᄌᆞᆸ다, ᄇᆡᄋᆞᆸ다' 등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형성된 어휘를 비롯하여 이른바 '객체 높임법'을 표시하는 선어말어미 '-ᄉᆞᆸ-'의 기능은 근대국어에서도 여전히 일부 남아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선어말어미 '-ᄉᆞᆸ-'을 통해 표시하는 '겸양'의 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객체에 대한 주체의 겸양'을 표시하는 기능은 점차 쇠퇴하였다. 그 대신 '-ᄉᆞᆸ-'이 주체에 대한 화자의 겸양을 표시함으로써 선어말어미 '-시-'에 의한 주체 높임을 한층 강화하거나,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겸양을 표시함으로써 'ᄒᆞ쇼셔'체나 'ᄒᆞ소'체에 의한 상대 높임을 더 강화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먼저 선어말어미 '-ᄉᆞᆸ-'이 주체에 대한 화자의 겸양을 표시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30) ㄱ. ᄌᆞ후가 일양 <u>낫디 못ᄒᆞ오시다</u> ᄒᆞ니 복녀로다 〈957-2, 외할머니(혜경궁)→외손자(정의)〉

ㄱ′. 샹후ᄂᆞᆫ <u>나으시나</u> 오ᄂᆞᆯ도 소셰 아냐 <u>겨신가</u> 시브니 더 됴셥ᄒᆞ려 <u>ᄒᆞ시ᄂᆞᆫ가</u> 시브다 〈987-2, 외할머니(혜경궁)→외손자(정의)〉

---

37) 다만 이 인용구문이 과연 실제 대화에 쓰인 상대 높임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어사 자료의 경우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경계가 모호하여 상대 높임법 역시 실제 사용된 것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예들이 많기 때문이다.

38) 선어말어미 '-ᄉᆞᆸ-'의 의미 기능 변화에 대해서는 이승희(2005a)를 참조.

(30ㄱ)는 혜경궁이 정의에게 쓴 편지로, ‘낫디 못ᄒᆞ오시다’의 주체는 ‘ᄌᆞ후’, 즉 혜경궁의 시어머니인 정순왕후의 건강이다. 비록 나이로는 정순왕후가 혜경궁보다 아래이나 친족 관계로는 명백히 상위자이므로 주체 높임의 ‘-시-’와 함께 주체에 대한 화자 겸양을 표시하는 ‘-ᄉᆞᆸ-’까지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역시 혜경궁이 정의에게 쓴 편지인 (30ㄱ′)을 보면, 주체가 ‘샹후’, 즉 혜경궁의 손자인 純祖의 건강인 경우는 ‘나으시나, 겨신가, ᄒᆞ시ᄂᆞᆫ가’와 같이 주체 높임의 ‘-시-’는 사용하면서도 주체에 대한 화자 겸양을 표시하는 ‘-ᄉᆞᆸ-’은 사용하지 않았다.[39] 두 예문의 차이는 후기 근대국어 시기에 선어말어미 ‘-ᄉᆞᆸ-’이 주체에 대한 화자 겸양을 표시함으로써 주체 높임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음은 선어말어미 ‘-ᄉᆞᆸ-’이 순전히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겸양을 표시한 예이다.

(31) ㄱ. 일긔ᄂᆞᆫ 한온 극히 <u>브됴ᄒᆞᆸ고</u> 비 <u>오ᄉᆞᆸ기</u> 쟝마 <u>ᄀᆞᆺᄌᆞ오니</u> 〈985-1, 외손자(정의)→외할머니(혜경궁)〉

ㄴ. 아히ᄂᆞᆫ 무요 <u>입달이오니</u> 든〃 <u>다힝ᄒᆞ와 ᄒᆞ오ᄃᆡ</u> … 흰떡 <u>가ᄉᆞᆸᄂᆞ이다</u> 〈1018, 아내(연안김씨)→남편(정의)〉

(31ㄱ)은 정의가 외할머니 혜경궁에게 쓴 편지인데, ‘브됴ᄒᆞᆸ고, 오ᄉᆞᆸ기, ᄀᆞᆺᄌᆞ오니’는 이른바 ‘객체 높임’으로 해석할 수 없고, 주체가 각각 ‘한온, 비, 비 오ᄉᆞᆸ기’이므로 주체에 대한 화자 겸양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여기에 쓰인 ‘-ᄉᆞᆸ-’은 모두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1ㄴ)은 정의의 아내가 남편에게 쓴 편지로, ‘입달이오니[도착하니], 다힝ᄒᆞ와 ᄒᆞ오ᄃᆡ, 가ᄉᆞᆸᄂᆞ이다’에 쓰인 선어말어미 ‘-ᄉᆞᆸ-’ 역시 객체도 주체도 아닌,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겸양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40]

---

39) 이러한 양상은 혜경궁의 편지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953-2〉 편지에서, ‘웃던의셔 그제브터 타담이 <u>경ᄒᆞ오시다</u> ᄒᆞ더니 어제ᄂᆞᆫ ᄆᆞ이 <u>긴ᄒᆞ오셔</u>’와 같이 ‘웃던’, 즉 정순왕후에 대해서는 줄곧 주체에 대한 화자 겸양의 ‘-ᄉᆞᆸ-’과 주체 높임의 ‘-시-’를 함께 사용한 데 비해, ‘밤의 친님슈셔계 <u>ᄒᆞ신다</u> ᄒᆞ니 어룬 남ᄌᆞ 일을 다 <u>ᄒᆞ시니</u> 긔특ᄒᆞ다’와 같이 생략된 주체가 純祖인 경우에는 주체 높임의 ‘-시-’만 사용하였다.

40) 화자가 청자를 아주높임의 대상으로 대우하여 ‘ᄒᆞ쇼셔’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한편 하나의 용언에 선어말어미 '-숩-'이 선어말어미 '-시-'의 앞과 뒤로 두 번 결합하여 각각 다른 기능을 표시하고 있는 예도 여럿 보인다.

(32) ㄱ. 야간 옥후 침슈 안녕ᄒᆞ오시ᄋᆞᆸ고 〈984-1, 외손자(정의)→외할머니(혜경궁)〉
ㄴ. 샹후ᄂᆞᆫ 밤 치위의 노동ᄒᆞ오시ᄋᆞᆸ고 셩톄 야간 침슈 졔졀 태평ᄒᆞ오신디 〈967-1, 외손자(정의)→외할머니(혜경궁)〉
ㄷ. 유익과져 ᄒᆞᄋᆞᆸᄂᆞᆫ 말ᄉᆞᆷ이오니 찰납ᄒᆞ여 회교ᄒᆞ오시ᄋᆞᆸ쇼셔 〈1018, 아내(연안김씨)→남편(정의)〉
ㄹ. 대내 문안은 태평만안ᄒᆞ오시오니 츅슈ᄒᆞ와 ᄒᆞ오며 〈1030, 추정: 상궁→왕실 인척(연안김씨)〉

(32)는 모두 선어말어미 '-시-'의 앞과 뒤에 선어말어미 '-숩-'이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다. (32ㄱ)은 청자는 혜경궁, 주체 역시 '(혜경궁의) 밤사이 건강과 주무시는 일'이고, (32ㄴ)은 청자는 혜경궁, 주체는 '임금', (32ㄷ)은 청자와 주체가 모두 남편이고, (32ㄹ)은 청자는 화자보다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대부 인물이며 주체는 '대내 문안', 즉 '왕실 구성원들'이다. 여기서 '-시-' 앞에 결합한 선어말어미 '-숩-'은 주체에 대한 화자의 겸양을, '-시-' 뒤에 결합한 선어말어미 '-숩-'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겸양을 표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41]

서술어에 예외 없이 선어말어미 '-숩-'이 쓰였다.

예 문안 알외ᄋᆞᆸ고 초하의 옥후 만안ᄒᆞ오신 문안 아ᄋᆞᆸ고져 ᄇᆞ라오며 … 알외올 말ᄉᆞᆷ 하감ᄒᆞ오심 황공ᄒᆞ와 이만 알외ᄋᆞᆸᄂᆞ이다 〈941-1, 외손자(정의)→외할머니(혜경궁)〉

여기에서 '알외ᄋᆞᆸ고, 아ᄋᆞᆸ고져 ᄇᆞ라오며, 알외올, 알외ᄋᆞᆸᄂᆞ이다'(__)에 쓰인 '-숩-'은 '객체 높임'의 표시, '만안ᄒᆞ오신, 하감ᄒᆞ오심'(__)의 '-숩-'은 주체에 대한 화자 겸양의 표시, '황공ᄒᆞ와'(__)의 '-숩-'은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 표시로 각각 파악된다. 그런데 이 예문에서 객체나 주체는 모두 청자와 동일한 인물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예문에 등장한 '-숩-'을 모두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해석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 선어말어미 '-숩-'이 현대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을 표시하는 것으로 기능이 변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41)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후반 자료이기는 하나, 「明成皇后 한글편지」에 나타난 다음 예문은 참고할 만하다.

예 여긔셔는 ᄌᆞ던 문안 ᄒᆞᄋᆞ오시ᄋᆞᆸ고 쟉일은 탄일 되오시오니 흔츅ᄒᆞᄋᆞᆸ고 샹후 문안도 태평ᄒᆞᄋᆞ오시ᄋᆞᆸ고 동궁의셔ᄂᆞ 옥침 안샹ᄒᆞ시오니 만힝ᄒᆞ오이다 〈언간의 연구 補41, 명성황후→윤용구 부인〉

5. 특이한 어휘

① 나이

「흥은위가」, 그중에서도 혜경궁의 편지에는 "(전보다) 낫게"의 의미를 지닌 부사 '나이'가 동사 '자다'와 '디내다'를 수식하는 데 쓰인 예가 여러 번 등장한다.

(33) ㄱ. 어지오놀은 죰을 나이 자시며 〈984-2〉, 밤의 죰을 나이 자시며 〈968-2〉
ㄴ. 밤의는 나이 디내고 〈974-2〉, 나는 나이 디내기 ᄒᆞ가지로다 〈980-2〉, 나는 작금은 셔증은 더 나이 디내나 〈1012〉

'나이'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 '낫-/낮-'의 이형태 교체를 하던 형용사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나ㅿ이'로부터 변화한 형태로 추정되는데, 다른 문헌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이다.

② 비변젓다

17세기 『淑明宸翰帖』 한글편지 중 仁宣王后가 딸 淑明公主에게 쓴 편지에는 명사 '비변'의 예가 등장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유일례이다(예 가샹이는 아젹브터 썩 달라 ᄒᆞ고 에인이 픠여시니 급작되이 썩ᄒᆞ노라 드러쳐시니 이런 비변이 업서 웃노라 〈38, 1658-1674년〉). 여기서 '비변'의 정확한 의미는 미상이나 문맥상 "변고" 또는 "불편한 소동"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흥은위가」 중 혜경궁의 편지에는 바로 이 '비변'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젓-'이 결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변젓다'가 등장한다.

(34) 상니 슉빅ᄒᆞ면 보면 됴흐ᄃᆡ 어ᄃᆡ 지슉 나 겨시다 ᄒᆞ니 보쟈 ᄒᆞ기 비변저으니 모리가 일ᄎᆞ니 모리 보게 오놀은 보아디라 말 아니ᄒᆞᆫ다 〈1000〉

주체가 '자전(神貞王后)'일 때와 '상후(임금의 건강)'일 때에는 선어말어미 '-시-'의 앞과 뒤에 '-ᄉᆞᆸ-'이 쓰인 반면, 주체가 '동궁'일 때에는 '안샹ᄒᆞ시오니'와 같이 선어말어미 '-시-' 앞에는 '-ᄉᆞᆸ-'이 결합하지 않았다. 비록 '동궁'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므로 '자전'이나 '임금'에 대한 것과는 주체에 대한 화자 겸양의 '-ᄉᆞ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용을 보면, 외손자 정의가 오늘 숙배하러 입궁하면 보고 싶었으나 오늘은 상감이 재숙을 나가 계시기에 정의가 숙배하러 올 일이 없는 터에 굳이 오늘 입궁해서 보자고 하기가 '비변저으니' 모레 보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비변저으니'는 문맥상 "번거로우니" 또는 "불편하니"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42]

③ 븨ᄒᆞ다

'븨ᄒᆞ다'는 한자 어근 '憊'에 'ᄒᆞ다'가 결합한 형용사로, 후기 중세국어부터 등장하는 '곤븨(困憊)ᄒᆞ다'와 동일한 의미, 즉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몹시 고단하다", "기력이 없고 피곤하다"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35) ㄱ. 먹디 못ᄒᆞ야 폐식ᄒᆞᆯ 째 만흐니 븨ᄒᆞ기도 심ᄒᆞ고 계유 디내며 〈998〉
ㄴ. 이공산은 이십여 일 졍지ᄒᆞ엿더니 븨ᄒᆞ야 도로 먹고 〈1003〉

'븨ᄒᆞ다' 형태는 한글편지를 비롯하여 다른 자료에 나타나지 않지만, 18세기 중·후반 왕실 문헌인 『御製自省篇諺解』(1746)과 『御製警世問答諺解』(1761), 『明義錄諺解』(1777)에는 '븨ᄒᆞ다'가 원순모음화를 거친 형태인 '뷔ᄒᆞ다'의 예가 보인다.[43]

(35′) ㄱ. 내 비록 긔운이 뷔ᄒᆞ고 졍신이 날ᄒᆞ야 퇴연ᄒᆞᆫ 째 만ᄒᆞ나 〈御製自省篇諺解 內:22a〉

---

42) '비변'은 혹 '비편(非便)'에서 변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물론 "편안하다"의 의미일 때에는 한자음이 '편'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자음 '변'도 존재하므로 가능성은 있을 듯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비편(非便)'은 형용사 '비편하다'의 어근으로만 등재되어 있는데, '비편하다'의 의미는 "「1」 순조롭지 아니하거나 편하지 아니하다. 「2」 부자연스럽고 느낌이 거북하다."로 제시되어 있다. 1번 의미가 '비변젓다'의 의미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한다.

43) '곤븨ᄒᆞ다'에서 원순모음화를 거친 형태인 '곤뷔ᄒᆞ다'의 예 역시 『御製自省篇諺解』와 『御製警世問答諺解』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예 ㄱ. 긔운이 스ᄉᆞ로 펴이고 평안ᄒᆞ야 그 곤뷔ᄒᆞᆫ 주ᄅᆞᆯ 씨ᄃᆞᆺ지 못ᄒᆞ니 〈御製自省篇諺解 內:8b〉
ㄴ. ᄇᆞ야흐로 곤뷔ᄒᆞ야 누어시니 혹 셜만ᄒᆞᆯ가 저허ᄒᆞ논고로 〈御製警世問答諺解 42a〉

ㄴ. 뷔ᄒᆞ야 누어 명ᄒᆞ야 닑히매 그 ᄆᆞ음이 ᄌᆞ졀호라 〈御製警世問答諺解 23a〉
ㄷ. 내 우연이 긔운이 뷔홈을 인ᄒᆞ야 잇ᄂᆞᆫ 바 집의 도라와 낫즘 자더니 〈明義錄諺解 卷首下 존현각일긔:1a〉

비슷한 시기 다른 문헌에서는 좀처럼 '븨ᄒᆞ다/뷔ᄒᆞ다'의 예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이 어휘는 주로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④ 우럿줍다

「흥은위가」에는 "우러러 뵙다" 정도의 의미로 파악되는 '우럿줍다'가 총 22회 나타난다(이들 모두 정의가 외할머니 혜경궁에게 보낸 편지에 쓰였다). 이 단어는 기원적으로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줍-'이 결합한 것인데,[44] 「흥은위가」에는 여기에 다시 화자 겸양의 선어말어미 '-ᄉᆞᆸ-'이 결합한 '우럿줍ᄉᆞᆸ-'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나며(19회), '-ᄉᆞᆸ-'이 없이 '우럿줍-'으로만 나타난 예는 소수이다(3회).

(36) ㄱ. 우럿줍ᄉᆞ완 디 오래오니 섭〃ᄒᆞ온 하회 깁ᄉᆞ와 ᄒᆞ오며 〈981-1〉
ㄴ. 내일 승후ᄒᆞ오면 우럿줍ᄉᆞ올 일 츅슈〃ᄒᆞ오며 〈981-1〉
ㄷ. 오ᄂᆞᆯ은 명일이오니 ᄌᆞ심 더옥 샹회 일비ᄒᆞ오심 우럿줍ᄉᆞᆸᄂᆞᆫ ᄃᆞᆺᄒᆞᅀᆞᆸ고 〈962-1〉
ㄹ. 죵일 든〃 ᄀᆞ독이 디내오심 우럿줍ᄂᆞᆫ ᄃᆞᆺᄒᆞᅀᆞᆸ고 〈992-1〉

18세기 중엽 『闡義昭鑑諺解』(1756)에서 '굉도대녀ᄅᆞᆯ 우럿ᄌᆞ왓도다 〈진천의쇼감젼:2a〉, 덕의 빗나오믄 이믜 신한으로 ᄇᆞᆯ키 드오시믈 우럿ᄉᆞ오니 〈진천의쇼감

44) '우럿줍다'는 기원적으로 동사 '우러르다'의 옛말인 '울월다>울얼다>우럴다'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줍-'이 결합한 것으로 보아 어간말 자음을 'ㄷ'으로 인식한 듯한데, 그렇다면 '우럴-'이 '우럿-[우럳]'으로 변화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럴-+-어→우러러'를 '*우럳-+-어→우러러'와 같이 'ㄷ' 불규칙 활용으로 오분석한 결과 '우럳-'이란 동사 어간이 등장하고(표기는 '우럿-') 여기에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줍-'이 결합하여 '우럿줍-'이란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현희(2002:140-146)에서 언급한 중세국어의 쌍형 어간 'ᄀᆞᆮ다~ᄀᆞᆯ다'[曰]와 '아쳗다~아쳘다'[厭]의 사례처럼 '울월다'도 '*울월다~울월다'라는 쌍형 어간의 동사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두 번째 가능성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젼:7b〉'와 같이 '우럿줍다'와 '우럿숩다' 두 개의 예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다른 문헌에서는 '우럿줍다'나 '우럿줍숩다'의 예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데 「흥은위가」에는 이처럼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자료가 둘 다 왕실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우럿줍다'가 최상위 신분인 왕실 어른에 대해 사용되는 특별한 궁중 용어였을 가능성도 있다.

⑤ 콩대님

현대 표준어 '콩댐'(불린 콩을 갈아서 들기름 따위에 섞어 장판에 바르는 일)의 선대형이 분명한 '콩대님'이 한 번 출현한다.

(37) 낙복지(落幅紙) 일빅오십 댱 잇고 법유삼(法油衫)도 보내니 모ᄌᆞ라디 아니홀가 콩대님ᄒᆞ야 쟝판(壯版)ᄒᆞ고 기여(其餘)ᄂᆞᆫ 장ᄌᆞ(障子) ᄇᆞᄅᆞ게 ᄒᆞ여라 〈977-2〉

유필재(2006:43, 각주 20)는 현대 서울말에서 (표현적 장음을 제외하고) 음장이 어두 음절에서만 실현되는 현상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 '콩댐:'을 보고한 바 있다. 그 논문에서는 이 단어의 장음이 "표현적 장음도 아닌 것 같다."고 밝혔는데, 이제 우리는 위의 문증례를 통하여 그 음장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 단어는 '콩대님〉*콩대임〉콩댐:' 정도의 변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비어두 음절에 음장을 지니게 된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수원화성박물관에 소장된 「흥은위가」를 대상으로 18 · 19세기 교체기 왕실 한글편지의 국어학적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이 편지 묶음은 발신 시기가 주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기에 걸쳐져 있으며, 발 · 수신자가 대부분 혜경궁 홍씨와 정의의 집안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당시 궁중 언어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국어사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흥은위가」에서 드러나는 궁중 언어의 특징은 한마디로 '대단히 보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후기 근대국어의 다양한 층위에서 전개된 역동적인 언어 개신의 모습이 이 문헌에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어사의 주요 음운 변화가 매우 제한적으로 출현하거나(예 'ㄷ' 구개음화, 마찰음과 파찰음 뒤 /y/ 탈락) 아예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든가(예 움라우트, 전설모음화, 비원순모음화, 어두 /ㄴ/ 탈락), 중세국어의 형태가 여전히 잔존하거나(예 /ㅎ/ 말음 체언, 의문형 종결어미 '-ㄴ다'), 후기 근대국어에서 "추측, 의도"를 표시하는 '-게 ᄒᆞ엿-〉-게엿-〉-겟-' 중 '-게 ᄒᆞ엿-' 형태만 등장한다는 점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흥은위가」는 후기 근대국어의 일반적인 모습을 충실히 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어사적으로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표기법과 상대 높임법 체계, /ㅐ, ㅚ/ 말음 어간에 '어'형 어미가 결합하는 양상, "원인, 이유"의 명사형 어미 '-기'의 용법 등이 전자에 해당하는 예라면, 부정문에서의 보조적 연결어미 '-든'의 빈번한 사용은 후자에 해당하는 예라 하겠다. 또한, 이 문헌은 다른 문헌에서는 찾기 어려운 단어들도 등장하고 있어 어휘사 연구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은 「흥은위가」라는 하나의 문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18 · 19세기 교체기'의 '왕실 한글편지'의 국어학적 특징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연구 자료를 확충하여 대조해 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동시대와 그 전후의 왕실 한글편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8 · 19세기 교체기의 민간 한글편지 및 刊本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자료로는 『淑徽宸翰帖』 · 『淑明宸翰帖』의 한글편지(이상 17세기 후기), 『정조어필한글편지첩』의 한글편지(18세기 후기), 貞純王后 한글편지(18 · 19세기 교체기), 純元王后 한글편지(19세기 전 · 중기), 明成皇后 한글편지(19세기 후기), 純明孝皇后 한글편지(19 · 20세기 교체기)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자료 중 한글편지의 예로는 신창맹씨가 『子孫寶傳』 소재 한글편지, 「추사」 · 「추사가」, 「학봉종가」 등이 있다(간본 자료는 이

미 잘 알려져 있기에 별도로 예시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필자들의 능력과 지면상의 이유로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병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주제어 : 興恩尉, 왕실, 후기 근대국어, 한글편지, 언간, 표기, 음운, 형태, 통사, 어휘

투고일(2021. 8. 16), 심사시작일(2021. 9. 27), 심사완료일(2021. 10. 12)

<참고문헌>

김일근(1986), 『언간의 연구』, 건국대 출판부.
김한별(2014), 「국어의 음운 변화 'syV〉…〉sV'에 대한 재고찰」, 『國語學』 72.
_____(2020a), 『19세기 전기 국어의 음운사 연구: 〈의성김씨 학봉 종가 언간〉을 중심으로』(國語學叢書 79), 太學社.
_____(2020b), 「언간 자료를 통한 음운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國語學』 95.
나진석(1971),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유필재(2006), 『서울방언의 음운론』, 月印.
이기갑(1987), 「미정의 씨끝 '-으리-'와 '-겠-'의 역사적 교체」, 『말』 12.
_____(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李基文(1965), 「近世中國語 借用語에 대하여」, 『亞細亞硏究』 8(2).
_____(2012), 「語源 硏究의 뒤안길」, 『韓國語硏究』 9.
李秉根(1970), 「京畿地域語의 母音體系와 非圓脣母音化」, 『東亞文化』 9.
이병기(2013), 「추사가 한글편지의 국어학적 고찰」, 『國語學』 66.
이승희(2000), 「奎章閣 所藏本 '純元王后 한글 편지'의 고찰」, 『奎章閣』 23.
_____(2005a), 「선어말어미 '-습-'의 의미 변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임홍빈 외), 태학사, 557-600면.
_____(2005b),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난 친족 간의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 『국어국문학』 140.
_____(2006), 「형용사 명령문에 대한 고찰」, 『李秉根先生退任紀念 國語學論叢』, 태학사, 553-565면.
_____(2007), 『국어 청자높임법의 역사적 변화』(國語學叢書 59), 太學社.
이종덕(2005), 『17세기 왕실언간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희(2002), 「중세 · 근대국어 형태론의 몇 문제」, 『문법과 텍스트』(고영근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139-155면.
황문환(2010), 「근대국어 'ㅎㅂ'체의 형성 과정과 대우 성격」, 『國語學』 58.
_____(2015),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언간(諺簡)』, 역락.

〈Abstract〉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Royal Hangeul Letters in the Late-18th- and Early-19th-Century

- With Special Reference to Hangeul Letters of the *Heung-eunwi* Family Preserved in Suwon Hwaseong Museum -

Yi, Seunghee * · Kim, Hanbyul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royal Hangeul letters in the late-18th- and early-19th-century, with special reference to Hangeul letters of the *Heung-eunwi* (興恩尉) family, a new collection of documents in Suwon Hwaseong Museum. This personal correspondence consists of letters that Jeong Ui (鄭漪), a son of *Heung-eunwi* Jeong Jaehwa (鄭在和) and princess Cheongseon (淸璿公主), and his maternal grandmother *Hyegyeong-gung* Hong (惠慶宮洪氏) exchanged with each other, as well as the ones from King Jeongjo (正祖), Queen Hyoui (孝懿王后), etc. These letters, therefore, can be evaluated as valuable documents for observing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royal and noblemen families in their daily life at that time. The present authors describe a brief bibliography of the correspondence (Ch. 2); examine its orthographic, phonological,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Ch. 3-4); and finally introduce some unique words found in the letters (Ch. 5). The findings from the research show that (1) in general, royal Korean in the period is "very conservative" since various kinds of linguistic innovation in Late Early-Modern Korean hardly appear in the letters; but (2) on the other hand, the documents faithfully reflect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of LEMK and, at the same time, boldly expose an unusual phenomenon at the time.

Key Words : *Heung-eunwi*, royal family, Late Early-Modern Korean, Hangeul letters, orthography, phonology, morphology, syntax, vocabulary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gang University.